

미국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주제에 대한 분석 연구*

An Analysis on Curriculum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U.S.

최상희 (Sanghee Choi)**

하유진 (Yoolin Ha)***

초 록

최근 대학에서는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실무현장과 학술연구분야를 반영하여 교과과정을 개편하자는 요구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개편에 필요한 해외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세 가지 측면에서 미국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 개설되어 있는 교과목을 분석하였다. 교과목 분석에 적용된 기준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문헌정보관리 직무단위, 한국연구재단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와 학술연구분야 분류표에 나타난 문헌정보학 주제 분류이다. 세 가지 측면으로 분석한 결과 공통되게 나타난 현상은 시스템 구축설계 및 정보기술분야의 교과목 수가 많은 것이며 도서관 및 정보센터 경영과 이용자서비스도 교과목이 많은 주제 분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ABSTRACT

Since new issues and topics are emerging in the information and library science fields, diverse needs are identified to enhance the curriculum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This study investigated curriculum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US and identified the topics of classes in the curriculum by the three aspects such as competency areas, scientific and technology category, and research fields. Consequently, topics related various information technology including system design and implement are the most popular topics in all analyses. Library and information center management and user service are also major topics of the curriculum.

키워드: 문헌정보학, 교과, 통계적 분석, NCS,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미국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urriculum, statistical analysis, NCS, U.S.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2A1A01026835).

** 대구가톨릭대학교 도서관학과 부교수(shchoi@cu.ac.kr) (제1저자)

*** Associate Professor of Clarion University Department of Library Science(yha@clarion.edu)
(교신저자)

■ 논문접수일자: 2019년 2월 16일 ■ 최초심사일자: 2019년 3월 26일 ■ 게재확정일자: 2019년 3월 27일
■ 정보관리학회지, 36(1), 53-71, 2019. [<http://dx.doi.org/10.3743/KOSIM.2019.36.1.053>]

1. 서론

최근 대학에서는 실무현장과 연계하여 교과 과정을 개편하자는 요구가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교과과정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활용패키지에서 기술된 문헌정보관리 직무 분야를 교과과정에 활용하고 하는 시도가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이다(한국산업관리공단, 2014). 문헌정보학과와 도서관학과처럼 학교 교과과정을 이수하면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사서자격증을 부여하는 학과에서는 국가에서 규정한 핵심 직무 내용에 주목하여야 한다. 즉, 교과과정을 이수하는 것으로 사서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증을 부여하기 때문에 교과과정이 사회가 요구하는 직무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교육의 핵심인 학술연구분야의 신동향도 교과과정 개편에서는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로서 다양한 정보기술과 정보산업의 이슈와 관련되어 문헌정보학문 분야에서도 교과개설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문헌정보학 교과를 개편할 때 참조할 수 있는 문헌정보교과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미국 문헌정보학과에 개설되어 있는 교과목 정보를 수집하여 세 가지 측면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첫째는 NCS 직무단위로 NCS는 도서관 및 정보산업 분야의 정보전문직 직무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실무 중심의 교육을 강조하는 현 대학교육의 상황에서는

교과과정을 현장에 맞게 개선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이 연구에서는 NCS에 정의된 '문헌정보관리' 직무의 능력단위가 미국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서 어느 정도로 다루고 있는지 현황을 조사하고 각 직무단위로 할당된 강의 수와 내용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둘째, 문헌정보학 관련 산학분야에 해당하는 주제를 미국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하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에 나타난 문헌정보학 주제 분류를 적용하여 미국 문헌정보학 교과목 동향을 파악하였다. 미국 문헌정보학 개설과정은 대학원에 개설되어 있지만 미국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은 사서 전문성을 교육하는 교과로 시작되었고 현재에도 사서를 배출하는 교육기관으로 미국도서관협회에서 주기적으로 인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문헌정보학 관련 직종의 직무 영역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직무를 기반으로 한 NCS 분류와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술연구분야와 관련하여 교과과정의 개설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하는 학술연구분야분류표의 문헌정보학 분류표를 적용하였다.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미국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서 개설된 교과목의 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국내 대학의 문헌정보학과에서 실무 중심의 교과과정을 설계할 때 참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선행연구

문헌정보학과와 도서관학과 교과과정은 정보전문직을 배출하는 목적으로 사회의 정보전

문직에 대한 요구에 따라 변화해왔고 교과과정에 대한 연구도 다양하게 시도되어 왔다.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50년간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의 주요 변화를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1960년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영역은 장서개발과 도서관 자료였으며 1980년대와 2000년대는 자료조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엄영애, 2009). 이 연구에 따르면 가장 주목할 사항은 이수 과목학점이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목의 과목명은 2배 이상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핵심과목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조직, 경영 및 도서관 봉사과목들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새롭게 신설된 과목이 크게 증가하여 문헌정보학과 교과과정에 시대적 변화에 따른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2012년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의 신규교과목 개설 현황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개설과목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언급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의 주제영역을 7개 영역으로 나누어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의 주제영역별 과목명칭 변화추이에 대하여 조사하였다(노영희, 안인자, 최상기, 2012). 그러나 교과과정을 분석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과목명을 조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실제 교과목에서 다루는 내용상의 변화까지는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과목명을 기준으로 교과내용을 분석하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내외 강의계획서에 나타나있는 키워드를 분석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최상기, 안인자, 노영희, 김주섭, 2013) 11개 학교에 개설된 정보조직론, 정보서비스론, 정보검색론, 도서관 경영론 4개 과목의 강의 계획서

키워드를 분석한 것으로 동일 교과목에서 다루는 수업내용의 학교간 차이를 비교하는 목적에는 적합하였으나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서 다루는 주제 영역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최신 국외에서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사례로는 주로 특정 주제영역별로 커리큘럼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 것으로서 어린이이용자 전문 사서를 위한 교과과정을 분석한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어린이이용자 사서에게 요구되는 문화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양성해줄 수 있는 교과내용이 미국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서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조사하였다(Worthington, 2017). 이 연구에서는 미국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이 개설된 33개의 학교 교과과정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93개 교과목에서 다루어지고는 있지만 충분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준을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도 편목과 분류에 대한 교과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직무요구사항과 비교 분석한 사례(Sibiya & Shongwe, 2018) 및 정보활용교육 관련 교과과정을 조사한 연구(Markowski, McCartin, & Evers, 2018)와 보건정보를 담당하는 정보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내용이 미국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정보 정보전문가의 역할에 대하여 고찰한 연구가 있다(Ma, Stahl, & Knotts, 2018). 국내에서도 각 세부주제별로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에 대한 고찰을 수행한 연구가 발표되었는데 도서관 경영(김영석, 2014), 정보서비스(남영준, 2011)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NCS를 기반으로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을 고찰한 연구는 NCS에 문헌정보관리 분야가 적용되

면서 수행되기 시작했다. 문헌정보학에서 NCS를 활용하여 교육과정 적용 및 개선을 하고자 수행한 연구(권선영, 백지원, 차성중, 2015)에서는 문헌정보학 전공의 한 교과목을 선정하여 NCS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운영한 후 평가하여 NCS 적용의 실효성을 측정하였는데 NCS를 적용하여 교과를 운영하는데 교육과정 개발 및 기자재 등 내부적 환경관련 요소와 수행 준거 및 평가 기준 정의 등 외부적 요소 등 두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NCS를 반영하여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아직 NCS를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개발, 운영, 평가, 질 관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되고 있지 못한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후속연구로서 2016년에 NCS에 기반한 문헌정보학 현장실습 교육과정 설계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는데(차성중, 2016) 현장실습 구성요인의 중요도 및 활용도 평가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NCS 문헌정보관리 직무 능력단위 중 이용자 정보서비스, 문헌정보조직, 문헌정보수집,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 문화정보서비스마케팅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현장 실습에서의 능력단위 활용도를 평가하여 NCS 기반 문헌정보학 현장실습 교육과정 모델을 설계함으로써 NCS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3. 연구 데이터 및 주제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정보전문직을 배출하는 문헌

정보학과 및 도서관학과 교과에서 다루어지는 주제에 대하여 고찰해보기 위하여 문헌정보학과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학과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학교 38개의 2017년 교과과정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각 학과에서 수집된 교과과정에 개설되어 있는 강의 수는 총 2,486개이며 이 중 석, 박사 논문 지도, 개별연구, 논문작성 등 문헌정보학 교과 주제와 연관 없는 과목을 제외한 주제성 강의는 총 2,301개이다. 학교 1개당 교과과정에 개설된 강의는 평균 62개였으며 주제성 강의는 평균 60개이다.

수집된 교과정보에서 주제 분석을 하기 위하여 채택한 분석 자료는 강의 명이었으며 강의 명에서 'introduction', 'advanced'와 같은 일반적인 용어와 전치사, 관사, 접속사 등을 불용어로 처리한 후 제목 키워드를 산출한 결과 총 5,413개가 추출되어 제목키워드가 강의 명에 출현한 빈도를 산출하였다. 빈도를 산출할 때는 동의어 처리를 적용하여 youth, young adult, adolescent 등 동일 개념을 표현한 키워드 등은 동의어로 처리했고 단수 및 복수, 동명사형 등도 단일 개념으로 정리하여 처리하였다.

미국 문헌정보학과의 강의 주제를 국내 문헌정보 관련 직무와 산학측면, 학술연구 측면에서 분석하기 위해서 실무중심의 분류표인 문헌정보학 관련 국가직무능력표준과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하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 문헌정보학관련 분류표 및 학술연구분야분류표를 적용하여 주제영역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분야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문헌정보학 연관 분야는 문헌정보학 전공 분야의 NCS는 ‘문헌정보관리’ 분야로 2011년 초안이 작성된 후 꾸준히 변경되어 최근 16개의 직무로 설정되어 제공되고

있다(〈표 1〉 참조).

직무는 기본 요소로 ‘능력단위’를 갖는데 능력단위는 한 직업 내에서 근로자가 수행하는 개별 역할인 직무능력을 단위(unit)화하여 개

〈표 1〉 문헌정보관리 직무단위 및 직무요소

순번	직무단위	직무요소
1	문헌정보조직	분류하기
		목록작성하기
2	이용자 정보 서비스	이용자정보서비스 기획하기
		이용자정보서비스 운영하기
3	문헌정보 실무 연구수행	문헌 연구하기
		연구 수행하기
4	문헌정보 이용 분석	문헌정보이용 평가하기
		시설이용 평가하기
5	문헌 정보 보존	수집자료 관리하기
		보존하기
6	문헌정보큐레이션	정보 분석하기
		정보 가공하기
7	문헌정보 서비스 마케팅	문헌정보 서비스 마케팅 기획하기
		문헌정보 서비스 마케팅 실행하기
8	문헌정보 수집 정책 개발	이용자 정보 요구분석 하기
		문헌정보 자료 수집하기
9	문헌정보수집	문헌정보 선택하기
		문헌정보 입수하기
10	문헌정보시스템구축	문헌정보 시스템 환경 분석하기
		문헌정보 시스템 기획하기
11	문헌정보시스템운영	문헌정보 시스템 운영하기
		문헌정보 시스템 평가하기
12	도서관 정보센터 경영관리	기획전략 수립하기
		조직인사관리하기
13	도서관 유관기관 협력	정책 분석 적용하기
		유관기관과 협력하기
14	독서문화 프로그램 계획수립	프로그램 요구분석하기
		프로그램 설계하기
15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진행하기
		프로그램평가하기
16	전자문서 정보관리	전자문서 생성하기
		전자문서 분류하기

발된 것이다(권선영, 백지원, 차성중, 2015).

NCS 직무단위는 도서관 및 정보산업 분야의 정보전문직 직무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실무 중심의 교육을 강조하는 현 대학교육의 상황에서는 교과과정을 현장에 맞게 개선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이 연구에서는 NCS에 정의된 '문헌정보관리' 직무의 능력단위와 미국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 개설되어 있는 강의를 매핑하여 국내에서 설정한 문헌정보학 관련 직무를 미국 교과과정에서 어느 정도로 수용하고 있는 지 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주요 직무단위별로 해당 직무영역에 속하는 교과목 제목에서 나타나

는 주요어를 조사하여 해당 직무에서 다루는 주요 주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문헌정보학 현장과 연관된 교과목을 과학기술 측면에서도 분석하기 위하여 문헌정보학의 주제를 과학기술주제분야로 분류한 한국연구재단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를 적용하여 미국 문헌정보학 교과목을 분석하였다.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에 문헌정보학은 SI. 미디어/커뮤니케이션/문헌정보의 하위 주제 분야로 설정되어 있으며 '도서관/정보/이용자', '정보조직/검색/시스템', '서지학', '기록관리' 등 총 4개의 중주제 아래 세부주제로 분할되어 있다(〈표 2〉 참조).

〈표 2〉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문헌정보 주제 분류표¹⁾

중주제명	소주제명
SI04 도서관/정보/이용자	SI0401.도서/도서관사
	SI0402.도서관/정보정책
	SI0403.독서지도/정보문해
	SI0404.출판/저작권
	SI0405.도서관/정보센터경영/평가
	SI0406.도서관/정보서비스
	SI0407.지식관리
	SI0408.정보원/정보매체/장서관리
	SI0409.정보행위/이용자연구
	SI0499.달리분류되지않는도서관/정보/이용자
SI05 정보조직/검색/시스템	SI0501.분류/편목
	SI0502.색인/시소러스/온톨로지
	SI0503.데이터/메타데이터의미관리
	SI0504.서지/용어/인용분석
	SI0505.검색모형/기법
	SI0506.자동분류/클러스터링
	SI0507.시스템분석/설계
	SI0508.데이터모델링/인포메이션아키텍처
	SI0509.데이터베이스설계/구축
	SI0599.달리분류되지않는정보조직/검색/시스템

1)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https://www.nrf.re.kr/biz/doc/class/view?menu_no=322)

중주제명	소주제명
SI06 서지학	SI0601.형태/체계서지학
	SI0602.교감학
	SI0603.고전자료조직
	SI0604.고문서관리
	SI0605.금석자료
	SI0699.달리분류되지않는서지학
SI07 기록관리	SI0701.기록법제
	SI0702.전자기록관리
	SI0703.민간기록관리
	SI0704.선별평가
	SI0705.기록서비스
	SI0799.달리분류되지않는기록관리

대학의 교육과정에서는 실무를 중심으로 하는 직무에 관련된 교육뿐만 아니라 학술적 이론을 교육하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미국 문헌정보학과 교과과정의 동향을 실무중심의 직무와 산업과 연관된 과학기술분야 내용으로 분석하는 것 이외에 학술적 영역으로도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 연구재단의 학술연구분야분류표를 활용하여 미국 문헌정보학분야의 교과목을 분석하였다. 문헌정보학은 학술연

구분야분류 중 대분류 복합학의 하위 분야로 들어가 있으며 주제 분야는 <표 3>과 같다.

각각의 분류표를 가지고 문헌정보학 전공자 3인이 수집된 강의 제목과 교과 설명을 바탕으로 주제내용에 따라 강의 주제를 비교분석하여 각 분류표에 해당되는 강의를 할당하였다. 강의별 최종 주제 분류는 각 강의별로 3인의 할당 항목을 비교하여 3인 중 2인 이상이 할당한 분류표의 항목을 해당강의의 주제영역으로 할당하는 방식으로 선정하였다.

<표 3> 학술연구분야 문헌정보학 주제분류표²⁾

분류번호	중주제명	소주제명
H030000	문헌정보학	
H030100	문헌정보학일반	문헌정보학일반
H030101		정보/도서관정책
H030102		비교문헌정보학
H030103		도서관사
H030200	기록관리/보존	
H030300	서지학	
H030400	도서관/정보센터경영	
H030500	정보서비스	
H030600	정보자료/미디어	

2) 학술연구분야 주제분류표(https://www.nrf.re.kr/biz/doc/class/view?menu_no=323)

분류번호	중주제명	소주제명
H030700	정보조직	
H030701		분류
H030702		편목/메타데이터
H030703		색인/초록
H030704		전문용어/시소러스
H030800	정보검색	
H030801		자동색인/요약
H030802		자동분류/클러스터링
H030803		검색모형/기법
H030804		데이터베이스
H030900	디지털도서관	
H031000	정보공학	
H031100	계량정보학	
H031200	정보교육	
H039900	기타문헌정보학	

4. 미국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주제

4.1 교과목 키워드 분석

수집된 미국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의 강의 중 주제성이 있는 강의 2,301개에서 교과목키워드를 추출하여 통계를 산출한 결과 <표 4>와 같이 상위 30개의 키워드가 도출되었다. 세부 키워드를 살펴보면 1위를 차지한 교과목 키워드는 information으로 총 494개의 교과명에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강의의 21%에 해당하였다. 2위는 library로서 총 167개로 7%에 해당하였으며 information과 비교하였을 때 information이 교과목명에 나타나는 비율이 library의 3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미국 문헌정보학 교과목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키워드는 information으로서 정보전문기관인 library로 한정하지 않고 보다 보편적인

개념인 information을 교과명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위는 management(148), 4위 design(129)로서 문헌정보의 세부 주제 중 경영과 설계 부분에 대한 강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기술(technology 123, system 101, digital 85, web 62, database 44, network 44, computer 37)관련 키워드들이 교과명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정보기술 관련 키워드들은 상위권에 나타난 용어를 총합하면 총 496개로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 정보기술 관련 과목들이 많이 개설되고 있는 현황이 파악되었다.

도서관 관중 관련 키워드로서는 school, public이 상위에 출현하였고 두 키워드가 출현한 강의 설명을 조사한 결과 도서관 경영 및 장서개발 관련 과목으로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은 독립된 교과목 주제로 제공되고 있는 빈도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 미국 문헌정보학 교과명 키워드 상위 30

순위	교과명키워드	강의수	순위	교과명키워드	강의수	순위	교과명키워드	강의수
1	information	494	11	media	52	21	application	42
2	library	157	12	youth	52	22	public	41
3	management	148	13	research	51	23	book	40
4	design	129	14	data	49	24	method	40
5	technology	123	15	children	46	25	development	39
6	system	101	16	database	44	26	program	39
7	digital	85	17	network	44	27	literature	38
8	informatics	66	18	school	44	28	study	38
9	organization	64	19	health	43	29	computer	37
10	web	62	20	service	43	30	security	37

이용자 유형과 관련된 키워드로서는 청소년(youth 52)과 어린이(children 46)가 상위에 나타나 청소년과 어린이 이용자를 주제로 특화하여 강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성인 이용자나 고령 이용자 등은 독립된 강의 주제로 특화되는 비율이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4.2 NCS 직무 능력단위 비교 분석

미국 문헌정보학 교육기관에서 실무와 관련된 교과목이 개설된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NCS의 분류표를 적용하여 3인이 코딩한 후 2인 이상이 일치한 과목을 해당 분류에 할당한 결과 NCS 직무에 매칭되는 과목은 총 1,412개였다(〈표 5〉 참조). 총 16개의 직무 분야 중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경우 계획수립과 운영이 분리되어 각각의 직무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과목상에서는 구분을 할 수 없어 하나의 직무로 묶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문헌정보시스템구축과 운영도 분리되지 않고 시스템으로 과목이 개설된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나 management나

managing으로 과목명에 명시되어 있으면 문헌정보시스템 운영으로 분리하였다. 그러나 실제 과목 내용상 문헌정보시스템구축에 할당된 강의 중 상당수가 운영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헌정보서비스마케팅의 경우도 서비스관련 과목 및 경영 관련 과목 내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교과목명에 마케팅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만 분리하여 문헌정보서비스마케팅으로 할당하였다.

가장 많은 강의가 매칭된 직무분야는 문헌정보시스템구축분야로 303개의 강의가 해당 주제로 할당되었다. 세부적으로 해당되는 강의를 살펴보기 위하여 해당 직무로 분류된 강의의 제목 키워드를 산출하여 조사한 결과 교과명으로 가장 많이 출현한 system이었지만 이는 직무단위가 문헌정보시스템이므로 세부 주제를 나타내는 성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information과 같은 키워드도 이와 유사한 경우로 판단된다. 그러나 2위로 나타난 교과명 키워드는 design으로 문헌정보시스템구축 분야에서 설계와 관련된 과목이 20%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표 5〉 NCS 직무단위 해당 강의 수

순위	직무단위	강의수	교과목 주요 키워드
1	문헌정보시스템구축	303	system, information, design, database
2	도서관/정보센터 경영관리	244	information, management, library
3	이용자정보서비스	223	information, history, library, instruction, program, literacy, learning
4	문헌정보수집	190	information, children, young adult, digital, electronic
5	문헌정보실무/연구수행	119	practicum, internship, librarianship, qualitative, quantitative
6	문헌정보조직	96	organization, information, cataloging, metadata, classification, knowledge
7	문헌정보시스템운영	44	management, project, system, web, database
8	문헌정보큐레이션	40	curation, analysis, analytic, application, library, literature
9	문헌정보보존	36	preservation, library, archive, digital, material
10	독서문화프로그램 계획수립/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29	storytelling, read(reader, reading 등 포함), adult
11	문헌정보이용 분석	28	information, behavior, mathematical, human, statistics
12	전자문서정보관리	27	digital, description, digitization
13	문헌정보수집정책개발	22	information, policy, intellectual freedom, copyright, ethics
14	문헌정보서비스마케팅	11	marketing, service, information, library
15	도서관유관기관협력	0	
	총계	1412	

시스템 설계관련 교과가 문헌정보시스템구축 분야에서 많이 개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atabase가 교과목명으로 41번 출현하여 정보시스템구축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련된 교과목도 많이 개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헌정보시스템구축과 유사한 직무인 문헌정보시스템운영에 해당하는 교과목은 총 44개의 강의가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경우 교과목에 운영이라고 명시된 경우만 해당하는 것으로 산출한 것이다. 조사 결과 총 44개의 과목 중 절반에 해당하는 22개의 과목명에 database가 출현하여 시스템과 관련하여 운영으로 명시한 경우 주로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교과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강의가 많이 개설된 직무분야는 도서관정보센터경영관리 분야로 총 244개의

강의가 개설되어 있었다. 이 분야의 교과목명에 출현한 키워드를 살펴보면 information이 84개, management 67개, library 37개로 상위 3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 키워드들은 세부 주제를 표현하기 보다는 도서관정보센터경영 일반에 해당하는 키워드라 경영과 관련하여 대상이 되는 기관으로 도서관정보센터경영 분야에 할당된 강의를 재조사하여 기관별로 분류한 결과 학교도서관 54개, 공공도서관 32개, 전문도서관 24개, 대학도서관 8개, 역사관련기관 3개로 나타났다. 즉, 경영의 대상으로 강의가 특화되어 있는 것은 학교도서관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공도서관, 전문도서관, 대학도서관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주목할 만한 사항은 대학도서관이 경영분야에서 특화되어 과목으로 개설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인데 research와 관련하여 서비

스나 장서개발 관련 과목이 개설되고 있는 현상과 연관하여 좀 더 상세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는 사항이다.

세 번째로 해당되는 강의수가 많은 것은 이용자정보서비스 직무로 총 223개의 강의가 할당되었다. 이 직무에 해당하는 교과목에 출현한 키워드를 조사한 결과 information이 51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제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information은 거의 대부분의 직무분야에서 출현빈도가 높이나 주제를 표현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information 다음으로 많이 나타난 것은 history(19개), library(16개), instruction(15개), program(14개)순이다. 서비스의 경우 역사에 관련하여 서비스를 특화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자교육과 도서관 프로그램 전반에 관련된 강의가 많이 개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도 literacy(11개), learning(11개) 등이 상위권에 나타나 정보활용과 관련된 과목이 독립적으로 서비스분야에서 개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용자정보서비스와 연관된 직무분야로 독서문화 프로그램 계획수립,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다. NCS 직무와 매칭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독서문화프로그램 관련 내용이 교과목명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독서문화프로그램 계획수립,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직무에 할당하였다.

총 29개의 강의가 독서문화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되어 이 직무에 할당되었으며 교과목명에 가장 많이 출현한 키워드는 storytelling으로 약 50%에 해당하는 총 14개 과목에서 교과목명으로 나타났다. 12개로 두 번째로 많이 출

현한 교과목 키워드는 read(reader, reading 등 포함)이었으며 adult(6개)가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상위 직무영역은 문헌정보수집인데 총 190개의 강의가 이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많이 출현한 교과목 키워드를 살펴보면 최상위는 information(55개)이었고 차순위가 children(28개)으로 나타나 문헌정보수집과 관련된 교과목이 어린이 장서 수집과 관련하여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문헌정보수집 분야에 할당된 강의를 정보매체별로 분류하여 분석을 하였는데 전자자료 관련 키워드(digital 18개, electronic 7개)가 가장 많이 출현한 것으로 전자자료 중심으로 장서개발 교과목이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제 분야로도 문헌정보수집에 할당된 강의를 분석하였는데 경영(9개), 과학(8개), 보건(7개), 사회과학(6개), 예술(5개), 법(4개)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별로 과목이 특화되어 있는 것을 조사하기 위하여 이용자 유형이 교과목명에 나타난 경우를 조사한 결과 children(28개), young adult(20개), adult(1개) 순으로 나타나 장서개발의 경우 성인은 독립적으로 특화하여 과목을 개설하는 이용자 유형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문헌정보수집과 연관된 직무분야인 문헌정보수집정책개발 직무에 해당하는 교과목은 총 22개인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해당 직무에 할당된 교과목에서 나타난 제목 키워드를 살펴보면 정보(information 14개), 정책(policy 13개) 같은 직무 자체를 표현한 키워드 외에 지적자유(intellectual freedom 5개), copyright(4개), ethics(2개) 등의 키워드가 교과목명에 출현하

여 해당 주제가 독립적인 교과로 개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섯 번째로 강의수가 많은 문헌정보실무연구수행에 해당하는 강의는 모두 119개로 이중 현장실습과 관련된 과목은 총 74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방법에 관련된 수업이 45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섯 번째 강의수가 많은 직무는 문헌정보조직으로서 해당 직무에 할당된 강의는 총 96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직무의 교과목에서 가장 많이 출현한 키워드는 organization으로 총 35개의 교과목명에서 나타났다. 분류 및 편목에 관련된 주요 키워드로는 cataloging(25개)이 세 번째로 많이 출현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metadata는 총 23번, classification은 총 16번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보조직분야를 대표하는 용어를 비교하였을 때 classification이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과목으로 개설되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록과 관련 있는 직무에 해당되는 강의를 분석하여보면 문헌정보큐레이션, 문헌정보보존, 전자문서정보관리 직무가 있는데 각 직무별로 할당된 강의는 문헌정보큐레이션 40개, 문헌정보보존 36개, 전자문서정보관리 27개로 나타나 유사한 수준으로 교과목이 특화되어 개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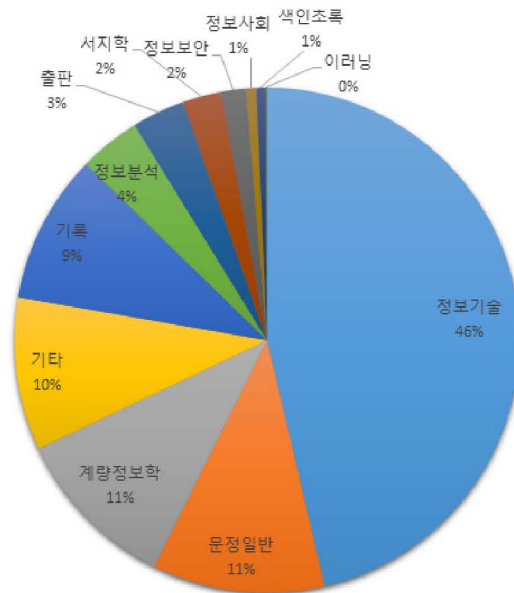
문헌정보큐레이션 직무에 할당된 교과목명을 살펴보면 analysis(13개), analytic(6개), analyzing(2개) 등 총 21개로 정보 분석에 대한 키워드가 전체 과목 중 50%에 해당하는 교과목명에 출현하여 문헌정보큐레이션 직무에 관련된 주요 교과목 주제가 정보분석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헌정보보존 직무분야에서는 digital에 관련된 과목 12개, 오디오, 사진, 멀티미디어 등 매체 관련 보존 5개, 도서관 관련 보존 5개로 나타나 전자 자료에 대한 보존이 독립된 과목으로 개발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도 문헌정보이용분석에 해당하는 교과목은 총 28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behaviors(14개), mathematic(6개), statistics(5개)로 나타나 이 중 수학, 통계와 같은 키워드들은 이용분석을 위한 도구적 측면에서 독립된 강의로 개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집된 주제성 강의 2,301건 중 NCS와 매칭 안 되는 과목은 889개로 39%의 강의가 NCS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할당이 안 되는 과목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해당 과목의 주제를 유사한 것끼리 3인이 분류하여 2인이상이 합의한 그룹으로 과목을 분류한 후 각 그룹의 주제를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정보기술 분야로서 이 분야에 할당된 과목들은 특정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다양한 분야의 정보기술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적인 정보기술 전반에 대하여 소개하는 과목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세분화된 정보기술에 관련된 것은 웹 개발이나 특정 어플리케이션 개발,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 등과 같은 과목들이었다. 두 번째로 할당이 되지 못한 과목들의 주제 분야는 문헌정보학 일반에 대한 것이었으며 세 번째로 직무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과목들이 계량정보학 관련된 기초 이론이나 방법론적인 교과목들이었다.



〈그림 1〉 NCS에 분류가 안 되는 과목 현황

4.3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비교 분석

미국 문헌정보학과 교과과정의 동향을 국내 문헌정보학 학술분류와 비교하여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연구재단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SI, 미디어/커뮤니케이션/문헌정보의 하위 주제 분야로 분석하였는데 ‘도서관/정보/이용자’, ‘정보조직/검색/시스템’, ‘서지학’, ‘기록관리’ 등 총 4개의 중주제 아래 세부주제로 분할되어 있는 각 중주제에 해당하는 교과목 수는 〈표 6〉과 같다.

〈표 6〉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중주제별 강의수

중주제명	해당강의수(비율)
도서관/정보/이용자	911(52%)
정보조직/검색/시스템	671(38%)
서지학	24(1%)
기록관리	157(9%)
총계	1,763(100%)

총 1,763개의 강의가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주제 분야에 할당되었으며 548개의 강의가 할당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NCS 직무에 할당한 것(1,412개, 61%)보다는 많은 강의가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에 할당되었다(1,763개, 77%). NCS 직무에 강의를 할당한 사례와 유사하게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에 할당되지 못한 강의로 가장 많은 경우는 일반적인 정보기술에 관련된 것이었으며 일반 실습, 연구방법에 대한 교과목이 포함되어 있었다.

가장 많은 강의가 할당된 중주제분야인 도서관/정보/이용자의 하위주제별로 강의가 할당된 현황을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가장 많은 강의가 할당된 소주제는 도서관/정보센터경영/평가 분야와 도서관/정보서비스인데 해당 주제 분야에 할당된 강의의 교과목 현황은 NCS 도서관 정보센터 경영관리와 이용자정보서비스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도서관/정보/이용자의 하위주제별 강의수

소주제명	해당 강의수
SI0401.도서/도서관사	54
SI0402.도서관/정보정책	28
SI0403.독서지도/정보문화	92
SI0404.출판/저작권	40
SI0405.도서관/정보센터경영/평가	244
SI0406.도서관/정보서비스	223
SI0407.지식관리	24
SI0408.정보원/정보매체/장서관리	190
SI0409.정보행위/이용자연구	16
총계	911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에서 독립적으로 나타난 주제 분류는 도서/도서관사, 출판/저작권, 지식관리, 정보행위/이용자연구이다. 첫째, 도서/도서관사에 해당하는 교과목은 총 54개로 이중 책에 관련된 역사에 해당하는 과목은 20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출판/저작권에 관련된 교과목은 총 40개로서 저작권과 지적자유에 대한 과목 9개를 제외하고 출판, 인쇄, 예술 등에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지식관리에 할당된 과목은 knowledge라고 교과명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당하였다. 총 24개 과목이 이 주제 분야에 할당되었으며 지식을 조직하는 내용을 다루는 과목은 총 10개에 해당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보행위/이용자 연구에 해당하는 과목은 user behavior나 이용자 분석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교과목을 할당하였으며 총 16개 교과과 할당되었다.

두 번째 많은 강의가 할당된 중주제분야인 도서관/정보/이용자의 하위주제별로 강의가 할당된 현황을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표 8〉 정보조직/검색/시스템의 하위주제별 강의수

소주제명	강의수
SI0501.분류/편목	86
SI0502.색인/시소러스/온톨로지	8
SI0503.데이터/메타데이터의미관리	24
SI0504.서지/용어/인용분석	147
SI0505.검색모형/기법	40
SI0506.자동분류/클러스터링	33
SI0507.시스템분석/설계	249
SI0508.데이터모델링/인포메이션아키텍처	21
SI0509.데이터베이스설계/구축	63
총계	671

시스템분석/설계가 가장 많은 강의가 할당된 하위주제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주제 분야에 할당된 교과목 명에 나타난 키워드를 살펴보면 design, system, information과 같은 시스템 설계분석을 표현하는 일반적 키워드 외에 web(21개), network(15) 등이 상위권에 나타났다. 즉, 웹과 네트워크가 시스템분석/설계에서 독립적인 주제로 특화되어 과목으로 개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NCS 직무 분류 분석에서는 시스템구축 및 운영 분야에서 주요 키워드로 나타났던 데이터베이스가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에서 단독 주제 분야가 되면서 데이터베이스 외에 관련된 주제가 상위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스템분석/설계 다음으로 강의가 많이 할당된 영역은 서지/용어/인용분석인데 이 주제 분야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에서 차별화되어 있는 영역으로 이 분야에 할당된 강의는 총 147개이다. 이 영역에서 교과목 키워드로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informatics이었으며 차순으로 많이 나타난 교과목 키워드는 health(26개)이

다. Health informatics에 관련된 교과목이 독립적으로 개설된 사례도 많이 발견되어 미국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서는 보건관련 데이터 분석에 대한 교과목이 특화되어 개설되는 동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검색모형/기법 영역에서는 retrieval, access, storage와 같은 검색모형의 일반적인 주제를 나타내는 키워드 외에 주목할 만한 교과명 키워드는 HCI로 검색모형 과목 중 총 40개의 교과목 중 9개의 교과목에서 제목 키워드로 포함되어 있었다.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의 SI0506.자동분류/클러스터링에 할당된 강의는 총 33개였는데 교과목명에 자동분류나 자동 클러스터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없었고 교과 설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할당하였다. 이 분류에 해당하는 교과목은 총 33개로서 교과목명으로 나타난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informatics가 30개, mining이 3개로 조사되어 계량정보학교과목과 데이터마이닝 교과목에서 자동분류와 클러스터링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 번째 중주제 분야인 서지학 분야는 미국 문헌정보학에서 교과목이 활발하게 개설되고 있지 못한 영역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24개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제별 서지와 서지학 일반에 대한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네 번째 중주제 분야인 기록관리 분야에서는 총 157개의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기록관리의 세부주제에 할당할 수 없는 교과목이 119개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교과목에는 기록 일반과 기록관리 일반에 대한 교과목과 정부기록관리, 공공기록관리, 기록시스

템 등 국가과학기술표준 세부주제로 나타나지 않는 기록에 관련된 주제가 포함되어 있었다. 세부주제에 할당될 수 있는 교과목은 전자기록관리 분야(21개), 민간기록관리(5개), 선별평가(10개), 기록서비스(2개)인 것으로 조사되어 전체 157개 교과목 중 24%만 세부주제에 할당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문헌정보학 주제 분류가 미국 문헌정보학 기록관련 교과목과 매치하지 않는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향후 국가기술표준분류에서 기록관련 분야의 주제 분류를 조정할 때 참고해볼 만한 사항이다.

4.4 학술연구분야주제분류 비교 분석

학술연구분야분류에 할당된 미국 문헌정보학 교과수는 총 2,014개로서 가장 교과목이 할당된 비율(87%)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도서관정책, 도서관사, 경영, 정보서비스, 정보자료/미디어, 분류, 편목/메타데이터, 색인/초록, 자동분류/클러스터링, 검색모형/기법, 데이터베이스 등 중복되는 주제 분야는 과학기술표준분류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연구분야 분류표 분석에서는 과학기술표준분류에 할당되지 못했던 교과목을 포함한 문헌정보학 일반 122개의 교과와 정보공학 교과 353개, 계량정보학 교과 98개가 추가로 주제분야로 할당되었다. 정보공학의 교과는 프로그래밍, 자연언어처리 등 정보공학기술 분야의 교과목으로 개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NCS와 과학기술표준분류에서 적용되었던 시스템 구축과 설계 분야는 학술연구분야분류에서는 디지털도서관에 분류하였는데 정보공학분야에는 좀더 구체적인 정보기술과 관련된 교과목을 할당하였고

〈표 9〉 학술연구분야분류 주제별 강의수

주제 분류	중주제명	소주제명	해당 강의수
H030100	문헌정보학일반		122
H030101	문헌정보학일반	정보/도서관정책	22
H030102	문헌정보학일반	비교문헌정보학	0
H030103	문헌정보학일반	도서관사	54
H030200	기록관리/보존		157
H030300	서지학		24
H030400	도서관/정보센터경영		244
H030500	정보서비스		203
H030600	정보자료/미디어		190
H030700	정보조직 일반		41
H030701	정보조직	분류	16
H030702	정보조직	편목/메타데이터	39
H030703	정보조직	색인/초록	6
H030704	정보조직	전문용어/시소러스	1
H030801	정보검색	자동색인/요약	0
H030802	정보검색	자동분류/클러스터링	33
H030803	정보검색	검색모형/기법	40
H030804	정보검색	데이터베이스	63
H030900	디지털도서관		18
H031000	정보공학		353
H031100	계량정보학		98
H031200	정보교육		41
총계			2014

시스템 전반적인 설계, 관리에 관한 교과목은 디지털도서관 항목에 할당하였다. 학술연구분야 분류별 강의 수 현황은 〈표 9〉와 같다.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국내 문헌정보학 교과를 개편할 때 참조할 수 있는 문헌정보교과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미국 문헌정보학과에 개설되어 있는 교과목 정보를 수집하여 직무단위와 관련 산업기술분야, 학술분야 등 세 가지 측면으로 분석하여 미국 문헌정보학과에 개설된 교과목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미국 38개 대학에서 수집한 교과과정은 총 2,468개였으며 이중 논문지도나 작성 등 대학원 일반과목을 제외한 주제성 교과목은 총 2,301개였다. 이 교과를 위 세 가지 분류에 매칭한 결과 NCS 직무와 비교하였을 때는 총 1,412개가 할당되어 전체과목의 61%가 할당 되었으며 국가과 학기술표준분류를 적용하였을 때는 77%에 해당하는 1,763개의 강의가 주제 분야에 할당되었다. 가장 많은 강의가 할당된 주제 분류기준은 학술연구분야분류표로 총 2,014개 교과목이 할당되어 87%에 해당하는 과목이 학술연구분야 주제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미국 문

헌정보학 교과과정이 사서의 직무나 과학기술적 측면보다는 학술연구측면에서 개설되고 성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교과목이 직무나 과학기술별로 세분화되기 보다는 학술연구측면으로 세분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NCS의 경우 최근 국내 교과과정 개선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류임에도 불구하고 위 세 분석 중에서 가장 해당되지 못하는 교과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문헌정보직무에서는 중요 직무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 웹 개발이나 프로그래밍 언어 등과 같은 정보기술과 데이터의 계량적 분석 등이 미국 정보전문직 교육에서 주요 주제로 자리잡고 있는 것에 반해 NCS의 직무에서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NCS의 개발에 있어 해외 정보전문직의 동향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NCS의 경우 직무가 분류된 단위가 과목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점도 있었다. 예를 들어 NCS에서는 독서문화프로그램 계획수립과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은 독립된 직무로 설계되어 있으나 실제 교과개설에서는 독립적으로 취급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 가지 분석에서 나타난 주목할 만한 사항은 시스템 구축 설계 및 데이터베이스, 정보공학 등 정보기술과 연관된 분야의 교과목 수가 많은 것이다. NCS의 분석에서도 문헌정보시스템 구축(303개)로 가장 강의가 많이 할당된 주제 분야로 나타났고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에서도 시스템 분석 설계(249개), 데이터베이스 설계/구축(63개)로 주요 주제 분야로 나타났다. 학술연구분야분류의 주제별 강의수 분석에서도 시스템 설계/구축을 포함한 디지털 도서관(267개)

과 다양한 정보기술 관련 교과를 포함한 정보공학(353)분류의 강의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세 가지 기준에서 정보기술 관련 분야와 함께 강의수가 많은 주제영역은 도서관 경영과 이용자서비스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과명에서 나타난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1위를 차지한 교과명 키워드는 information으로 총 494개(21%)의 교과명에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위는 library로서 총 167개(7%)로 조사되었다. information이 교과목명에 나타나는 비율은 library의 3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는 미국 문헌정보학 교과목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키워드는 information으로서 정보전문기관인 library로 한정하지 않고 보다 보편적인 개념인 information을 교과명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도 경영과 설계 관련 키워드가 교과명에 많이 출현하여 경영과 설계가 교과명을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기술 관련 키워드들도 교과명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서관 관중 관련 키워드로서는 school, public이 상위에 출현하였고 두 키워드가 출현한 강의 설명을 조사한 결과 도서관 경영 및 장서개발 관련 과목으로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은 독립된 교과목 주제로 제공되고 있는 빈도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에서 교과목명과 교과 설명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였으나 키워드 분석에서는 교과목명만 활용하여 키워드를 산출하여 실제 교과내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교과 설명을 포함하여 실제 강의 내용을 표현하는 키워드를 산출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제언한다.

참 고 문 헌

- 권선영, 백지원, 차성중 (2015). 문헌정보학 전공에서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한 교육과정 적용 및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3), 141-169.
<http://dx.doi.org/10.16981/kliss.46.201509.141>
- 김영석 (2014). 문헌정보학의 도서관경영 분야 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1), 173-196.
<https://doi.org/10.16981/kliss.45.1.201403.173>
- 남영준 (2011). 우리나라 문헌정보학과 교과목의 정보서비스 영역에 대한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2), 343-362. <https://doi.org/10.16981/kliss.42.2.201106.343>
- 노영희, 안인자, 최상기 (2012). 한국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의 신규교과목 개설추이 분석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1), 29-53. <http://dx.doi.org/10.4275/KSLIS.2012.46.L029>
- 엄영애 (2009). 문헌정보학과 학부 교과과정의 변화.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2), 409-427.
<https://doi.org/10.16981/kliss.40.2.200906.409>
- 최상기, 안인자, 노영희, 김주섭 (2013). 국내외 문헌정보학 주요교과목 강의계획서분석을 통한 수업내용 및 방법 비교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2), 223-245.
<http://dx.doi.org/10.4275/KSLIS.2013.47.2.223>
- 한국산업인력공단 (2014). 2014 국가직무능력표준 표준 및 활용패키지: 문헌정보관리. Retrieved from https://ncs.go.kr/th06/bbs_lib_view.do?libDstinCd=01&libSeq=20140721000531520&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eIndex=0
- Ma, Jinxuan, Stahl, Lynne, & Knotts, Erica (2018). Emerging roles of health information professionals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urriculum development: A scoping view. *Journal of Medical Library Association*, 106(4), 432-444.
<https://dx.doi.org/10.5195/jmla.2018.354>
- Markowski, Brianne, McCartin, Lyda Fontes, & Evers, Stephanie (2018). Meeting students where they are: Using rubric-based assessment to modify an information literacy curriculum. *Communications in Information Literacy*, 12(2), 128-149.
<https://dx.doi.org/10.15760/comminfolit.2018.12.2.5>
- Sibiya, Philangani Thembinkosi, & Shongwe, Mzwandile (2018). A comparison of the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curriculum and job requirements. *Library Management*, 39(6/7), 474-487.
- Worthington, Becca (2017). Towards a better understanding of opportunities for performance training within the MLS curriculum: Issues for enhancing education of children's librarians.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8(4), 202-218.
<https://dx.doi.org/10.12783/issn.2328-2967/58/42>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 Noh, Younghee, Ahn, InJa, & Choi, SangKi (2012). A study on new courses offered in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6(1), 29-53. <http://dx.doi.org/10.4275/KSLIS.2012.46.L029>
- Choi, Sang Ki, Ahn, In Ja, Noh, Younghee, & Kim, JuSup (2013). A comparative study on curriculum contents and teaching methods based on the syllabi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and foreign universit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2), 223-245. <http://dx.doi.Org/10.4275/K8LI8.2013.47.2.223>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2014). 2014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and application package: Information and library sicnece. Retrieved from https://ncs.go.kr/th06/bbs_lib_view.do?libDstinCd=01&libSeq=20140721000531520&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eIndex=0
- Kim, Young Seok (2014). A study on the education of library management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1), 173-196. <https://doi.org/10.16981/kliss.45.1.201403.173>
- Kwon, SunYoung, Baek, Ji Won, & Cha, Sung Jong (2015). A study of the curriculum application and improvement based on National Competence Standards (NCS) at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6(3), 141-169. <http://dx.doi.org/10.16981/kliss.46.201509.141>
- Nam, Young Joon (2011). An analysis on the information service of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urriculum in South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2), 343-362. <https://doi.org/10.16981/kliss.42.2.201106.343>
- Um, Young Ae (2009). The changes in the curricula of the department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2), 409-427. <https://doi.org/10.16981/kliss.40.2.200906.409>